

94학년도 신입생선발요강 확정

내신 40% 반영, 대학별 고사 2과목 실시

94학년도 본교 신입생 선발 요강안이 지난달 30일 교무위원회에서의 통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확정된 요강안은 내신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단 경주캠퍼스(한예과, 의과 제외)는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주 캠퍼스 전학과 공히 내신성적 40%반영을 규정했으며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한예과, 의과대학간 실시하게 될 대학별고사는 2과목으로 정하고 인문계열은 국어 필수, 국사와 일반사회 중 택일,

자연계열은 수학을 필수로 물리, 화학, 생물 중 택일해 시험에 임해야 한다.

특히 고교 재학생 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 등의 시험을 2회 실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고사 반영비율은 계열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은 내신,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비율을 40%, 40%, 20% 반영으로 배정(경주캠퍼스 한예과, 의과대학 동일)하고 경주캠퍼스 일반대학은 내신,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율을 각각 40%, 50%로 하며 면접고사를

20%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사범계열 학과와 예술대학의 평가비율은 △서울캠퍼스 사범계열 일반학과=내신 40%, 대학수학능력시험 30%, 대학별고사 20%, 면접고사 5%,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5%이다. 또 경주캠퍼스 사범계열 일반학과는 서울캠퍼스 평가비율과 같으나 대학별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로 크게 비중을 뒀다.

또한 체육교육학과는 내신 40%, 대학수학능력시험 20%, 실기고사 30%, 면접고사 5%,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5%를 반영한다.

실기고사 비중이 높은 예술대학 미술학과(서울·경주 공통)는 내신 40%, 대학수학능력시험 30%, 실기고사 30%의 비율로 선발하며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연기, 기술 전공과목에 한해 실기고사 30%를 반영해오던 연극영화과는 특별전형자 1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발자는 실기고사를 치르지 않고 일반전형과 같은 시험을 치르게 된다.

현재 고교 2학년부부터 적용되는 이 요강안은 그동안 확립된 국가관리 입시제도에서 벗어나 대학자유권에 위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3월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1백32개 대학중 본교를 포함한 1백

20여개 대학이 입시요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 대입제도는 교육부가 내신성적 40%이상반영을 규정할 것을 제외하고는 대학별고사(본교사)의 비율과 과목수선택은 대학당국에 맡겨졌으나 과목수에 대해 가능한 국·영·수 등의 도구과목을 최대 3과목 이내로 결정할 것을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의 경우 사범대 몇개과를 제외한 전학과에서 정원의 10%를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발하는 특별전형 제도를 마련했으나 본교는 여타의 특별전형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들이 국·영·수를 비롯한 4개 과목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교육부의 국·영·수 도구과목을 피하라는 행정지침

에 어긋나 마찰이 예상되나 본교의 입시요강안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회 대의원회 부회장·감사 보선

교수회는 제17차 대의원회를 지난 2일 오후4시30분 대의원 17명(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회의실에서 열고 지금까지 결원상태에 있던 부회장·감사를 각각 보선했다.

이날 부회장으로 이순용(법학)교수, 감사에 김주환(지리교육)교수가 선출되었다. 또한 교원인사제도개선문제를 비롯한 현시기 학내 등특목부쟁과 재단혁신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장단을 중심으로 대차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의결했다.



◇재단을 혁신하라! 서울·경주 총학생회의 연합집회가 지난 31일 경주캠퍼스 1백60여명의 상경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7면>

교과위, 교육과정 개선안 제시 오는 17일 학교측과 3차협의

중앙교과과정학생위원회(이하 교과위) 위원장=구본남·법학4)는 지난달 20일과 지난 3일 두차례에 걸쳐 김인제(경제학)교무처장, 김보환(경찰행정학)학술부장과 교육과정 개선

6개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교과위가 제시한 이 6개안은 △대학교육 활성화 전문기구 건설 △교무처장, 학술후장 임명직이 되는 교수대표 3인, 학생대표 3인 구성의 교육과정위원회의 정성과 △신규 교수채용의 민주적 제도의 틀 마련 △교양강화를 증진적으로 하는 교과과정의 개편 △교양강화 중심의 강의 평가제 실시 △강의계획서 사전제도를 구체화 등이다.

등은 학교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교무처장은 신규 교수채용시 “과 심사 기준보장과 각 학과장에게 공문 발송을 통한 서류공개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동정

▲박정국(화학공학)=‘아시아-태평양지역 생물화학공학 국제학술회의’참가를 위해 오는 12일 일본 요코하마시로 출국.

▲김재문(경주캠퍼스 법학)=지난 28일 열린 제8회 한국고문서학회 월례발표회에서 ‘조선전기 법제문제’에 관한 내용발표.

본사사령

◇임수습기자(서울캠퍼스)

▲남상수(문과대 국문1) ▲조호예(문과대 국문1) ▲김상현(문과대 일본1) ▲김대규(문과대 사학1) ▲이근형(사과대 행정1) ▲박재철(경상대 무역1) ▲강인준(야간강좌 경제1)

◇경주캠퍼스

▲이한영(인문대 불교1) ▲김태성(인문대 국문1) ▲공경옥(인문대 영문1) ▲이재관(경상대 환경1)

(이상 4월1일자)

학내 환경개선 사업 활발 동국관 증축 28일 완공

관치(처장=서윤길·불교학)는 낡은 쓰레기통, 농구골대를 교체하고 동국관 증축공사 등 학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3일 기존의 낡고 손상된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쓰레기통을 철관 재질의 옥외용 쓰레기통으로 교체, 총64개를 제작해 학내 곳곳에 배치했다.

또한 학생처와 중앙 체육부의 요청으로 운동장4개, 만해

광장2개, 공대운동장2개의 농구골대를 교체했다.

특히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추진해 온 체육관 마루바닥 공사를 지난 4일 마쳤으며 동국관 증축공사는 오는 28일 완공예정인 마루리 공사가 한창이다.

한편 공과대 기계공학과 학생회실 마련을 위한 공과대 학생회 문화부실 개조공사도 지난 3월30일 마무리됐다.

가운데 바깥에 돌출하는 쓰레기가 무수히 덩구는 것일까. 아무도 자기 혼자만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때문일까.

대중교통에서 하나인 유마경(維摩經)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라고 우리를 중

마음이 청정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불교’는 보살의 청정한 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사람의 마음이 전부 다 그대로 보살정도로 일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가끔 악마같이 오탁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를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를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

한 6차협상을 갖는다.

학교측과 노조측은 지금까지 팽팽한 협상을 벌여 오긴 했지만 지난달 31일 비상교무위원회의로 결렬된 2차협상을 비롯 5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학교측은 단체협약안으로 △인사위원회 재설립의 결과에 승복시 학교측 재설립 △직원인사위원회의 참가에 기술직 1명 포함 △여직원 인사문제에 공개채용에 국한하여 점수기간 검토, 기술직에 한해서 4급까지 신설 △보직임용시 1인1보직제 수용 △사무직의 적정정원 철폐 △명예퇴직제 제도에 상정 △하비보조금 등 고령 2인에 한해 확대 지급 △컴퓨터 교육은 2회까지 수업 △직원장간에는 창안자에게 특별승진의 혜택을 사제하고 포상까지 수업 △시행일자 삭제 전제로 컴퓨터 설치 등 만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보여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임금인상부분에서 양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노조측의 16%범위내의 인상요

노조 단체협약·임금협정 협상 오늘 전진대회 개최 및 6차협상

직원노조(위원장=이진배·경상대·교학계)는 오는 8일 정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 교무위원 회의실에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대

한 6차협상을 갖는다.

학교측과 노조측은 지금까지 팽팽한 협상을 벌여 오긴 했지만 지난달 31일 비상교무위원회의로 결렬된 2차협상을 비롯 5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학교측은 단체협약안으로 △인사위원회 재설립의 결과에 승복시 학교측 재설립 △직원인사위원회의 참가에 기술직 1명 포함 △여직원 인사문제에 공개채용에 국한하여 점수기간 검토, 기술직에 한해서 4급까지 신설 △보직임용시 1인1보직제 수용 △사무직의 적정정원 철폐 △명예퇴직제 제도에 상정 △하비보조금 등 고령 2인에 한해 확대 지급 △컴퓨터 교육은 2회까지 수업 △직원장간에는 창안자에게 특별승진의 혜택을 사제하고 포상까지 수업 △시행일자 삭제 전제로 컴퓨터 설치 등 만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보여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임금인상부분에서 양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노조측의 16%범위내의 인상요

구안에 반해 학교측은 기본급 정률 8%인상, 체력단련비 본봉의 100%만을 받아들이는다는 방침때문에 지난 3일 진행된 5차협상도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직원노조 한 판계자는 “학교측 대표는 모든 책임을 재단에 전가하면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입장만 주장한다”고 지적하고 끝까지 협상의 내용들을 관철시킬 뜻을 비쳐 오는 8일 6차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수

대자연의 부단한 成住壞空의 순환은 목숨에 자리한 우리 캠퍼스에도 어느새 봄을 활짝 피우고 있다. 엄동설한의 비바람치던 대지가 생동하는 아름다움을 닮아 창창하고 있다. 연푸른 새싹도 그 보드라운 피부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시인은 찬란한 봄을 찬양한 것이리라. 자연이 묘하게 미를 창조하고 인간은 그것을 누리며 상찬하는 것은 어쩌면 특권인지 모른다. 그래서 깨끗이 치워놓고 가꾸어 정리해 놓은 구석

구석에 바람에 흩날리는 쓰레기가 무수히 덩구는 것일까. 아무도 자기 혼자만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때문일까.

대중교통에서 하나인 유마경(維摩經)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라고 우리를 중

마음이 청정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불교’는 보살의 청정한 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사람의 마음이 전부 다 그대로 보살정도로 일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가끔 악마같이 오탁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를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를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를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를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를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를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를 타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지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대졸 신입사원 모집

큰 일터엔 큰 보람이 있습니다.

1. 모집부서·인원 및 자격

모집부서	인원	응시자격
이공계 기계공학·전기공학 건축공학·토목공학 산업공학·금속공학 화학공학·전자공학 전산·수·물리학	700명	●정규 4년제대학 92년 8월 졸업예정자 (단, 기졸업자는 92년도 2학기 전역 및 7월말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함)
인문사회계 * 모집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 또는 부전공자	250명	●1964년 1월 1일 (삭자는 6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 및 신체검사(1차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 그룹 소정양식) 2통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1통
(대학원 출신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1992년 4월 6일(월) ~ 4월 15일(수)
매일 오전 9시 ~ 오후 5시 (공휴일도 접수함)
나) 장소: 현대인력관리위원회 (우편번호: 110-793)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별관 (비원영)
지하 3층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전화) 746-3232

5. 기타

가) 육·해·공군 장교 출신자는 우대함
나) 우원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바람

1992년 4월

現代 人力管理委員會

사설

이제 재단이 나설때다

지난 7일 제24대 총학생회는 비상 전체학생대표회의를 열고 이자리에서 재단혁신투쟁으로의 대진을 결의함으로써 두달여 동안 계속되어온 등록금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0차례의 협상은 아무런 결硕果없이 마무리 되었고 학교당국도 이제는 재단만을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등록금투쟁에 있어 문제는 재단혁신을 통한 재단전입금의 확충으로 모아진다. 기존 10억의 재단전입금은 학교당국 총예산의 5%도 안되는 액수로 예산부담의 등록금의존율이 점차 높아져만 가고 있다.

재단이사장실 접견능력 28일제를 맞고있는 현재 재단은 아직까지 재단혁신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여하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학교당국은 오히려 재단의 해결중용에 어정정한 처지를 토로하고 있음을 볼때 재단이 진지한 대화의 자세로 이번 문제에 직접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재단이 결코 학생들의 절실한 소망을 이해할리도 없을 것이며, 학교발전에 대해 무관심하게 관조만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지금 당장에 재단재무구조를 수익사업체제로 전환 시기기는 어려울지라도 재단은 학생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성의있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법인 등록학원의 자산규모는 서울 시내 타사학재단보다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재단혁신투쟁으로까지 전화된 것이다.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나 직원, 동문에서도 모두 동의하는 내용일 것이다.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수익사업체제로의 전환 방법들에 재단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실질화시켜내야 한다.

등록재단은 학내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현시기 시급히 요구되어지는 점이다. 조심스런 얘기지만 학생들 일부사이에서 운운되는 재단이사들에 대한 모종의 풍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 및 해명이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연히 '부정부리의 근거가 있다' '언제든지 폭로할 수 있다'는 등의 험박이던 협박에 재단측은 학내구성원들에게 결연히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혀야 한다. 재단이 도덕적으로 선결성을 잃었음에 어떠한 대가라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예측하기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재단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자체에 반대하는 등록학원의 주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혁신방법면에서 많은 이견들이 상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방법상의 문제라면 이를 놓고 재단과 교수, 학생, 직원이 화합된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재단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등록금투쟁의 단련적 요구를 재단전입금확충, 재단의 인적구조 개선등의 학내 구성원체들이 공동연대하는 높은 차원으로 전개하면서 학생들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등록금투쟁이라는 예외적의 발로에서 출발해야 한다. 분별력없는 물리력의 행사나 필요 이상의 적대적 요소를 만드는 것은 올바른 투쟁방법이 아닐 것이다.

지금 학생회에서는 동부가 재단혁신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총장이 확인한 재단전입금 10억원 추가확충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내역의 공개를 비롯해 학교발전에 대한 장·단기적인 마스터 플랜의 제시, 재단에 대한 의혹을 불식할 수 있는 진지한 해명을 주장하고 있다.

매년 등록금 투쟁이 전개되면서 통역없이시피하는 재단혁신의 대의명분을 학교구성원들은 일정정도 타성적으로 넘기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재단혁신의 조속한 매듭이 없는 상태에서 등록학원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이는 없을 것이다. 92년에 도다시 88년 학생자주화투쟁의 소용돌이를 초래하게 될 빌미를 이제 현명하게 극복하도록 모두가 분발해야 하겠다.

열린글터

여학생회 자리매김... '4분의 1' 권리찾기부터

동학 학우들의 4분의1가량이 여학우이다.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서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들도 엄연한 주인으로서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여학우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그동안의 인식 부족과 역량의 부족으로 여학생회장 선거의 무산에 맞고 있는 현실정에서 과연 여학우들은 무엇을 고민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총학에 여성부가 설치되면서 대자보 작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수업에 지장주는 방송 곤란해

나쁜한 몸은 따사로운 봄볕속에 묻고 있을때면 교정을 가득 채우는 교향곡, 발라드, 특루를, 혹은 해비메탈 음악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어느새 손가락 장단까지 맞추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기분좋은 음악도 짜증스럽게 들릴때가 있으나...그게 바로 수업시간일때다. 4교시가 시작되고 한참 수업에 몰두할즈음 어김없이 들려오는 DKBS를 알리는 낭랑한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때로는 청량감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날 진지한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나의 정가에, 대동 강한 기타반주와 드럼, 키보드, 그리고 이듬모를 외국가수의 것이 절뚝한 음성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순간에 당황해 하시는 교수님의 얼굴을 재미있게 쳐다볼 수 만은 없는 우리... 이로써 그날 4교시 수업은 본의아니하게 일찍 끝나버리고 말았다.

내친걸에 몇마디 더 적어보겠다. 방송내용을 듣다보면 가끔 본래의 사실보다 조금 크게 보도되거나, 대학문화에 걸맞지 않는 신곡과조의 방송에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릴 때도 있다.

진정 오락방의 '잡언론'의 산실 교육방송이 되고자 한다면 보다 신중하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지 기존의 방송 시간대를 옮겨보는것은 어떨런지.

예를 들어 수업중에는 조용한 음악위주로, 점심시간이나 등·하교시

알림

동대신문 보내미 모임이 오는 10일 오후 6시 본사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만나고 싶었습니다

방영림 아주머니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생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다량관 보리수에서 빈 유리곽과 음료수곽을 수거하고 있는 방영림(51세) 아주머니.

방씨는 학복위속속 용역아주머니로 현재 3년째 다량관 보리수에서 바닥청소와 탁자정리를 맡고 있다. 지난 3월 초 카톨릭의 '한마음 운동'에 동참하게 되면서 빈 유리곽을 수거해 팔로 찢어 편후 이것을 다시 찢고 팔리는 등의 일을 손수하고 있다. 이것들은 다시 재생공장으로 보내져 재활용 화강석으로 만들어져 나온다.

처음엔 방씨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까지 빈리곽들을 거내는 모습을 보면서 비위생적이라며 눈살을 찌푸리던 일부학생들의 의 오후에도 있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의 정당함 때문인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

일손이 바쁜 요즘은 하루 수거량이 5백여개 밖에 되지 않아 학생들의 도움이 간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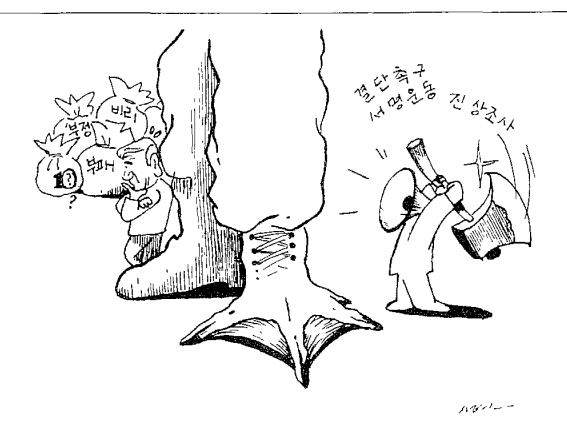
대학에서 먼저 시작하는 재활용이아말로 자원수입이라는 데대없는 외화의 낭비를 막고, 우리가 주인인 동학을 스스로가 깨끗이 하는 작은 실천이 곧 애국운동의 시작일 것이라며 당부했다.

앞으로는 폐전전지나 종이컵까지도 자신이 수거할수 있도록 학교내에서 학생들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방씨는 일손을 쉬지 않았다. 세상 일하는 손이 아플때마다 생 각이 들었다.

(조종수 기자)

東國漫評

박성민



‘전국 통일일꾼 전진대회’를 다녀와서

처음 가본 호남고속도로에 붉은 햇살이 부서지던 지난 27일 무언가 일어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 학교 통일 일꾼들과 이리로 향했다. “우와, 와 이래 정도!”하는 탄성을 지르며 들어간 원광대에는 전국에서 모인 7백여 통일 일꾼들의 열기가 모여져 제2회 전국 통일 일꾼 전진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첫번째 순서로, 서남충원 학우들과 가진 분인토의에서, 조동원 총노선 강의에 대해 토의를 하고 그동안 갖고 있던 막연한 ‘통일’을 선배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동지애로 조국통일에 대한 열의 가득

따라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 의를 했다. 통일일꾼들의 힘찬 노래로 전날 쌓인 피로를 부수며 시작된 둘째날은 머리가 깨지고, 몸이 부서지고, 마음까지 땀기 날이었다. ‘법정학원, 범민련, 범민족대회,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나 하는 말에, 누가 나에게 ‘동지’라 불렀을때 당혹스러웠지만 지출 그 엄청난 책임에 대해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다. 강의가 끝나자 운동장으로 달려가 강내음을 즐겼다. 그러나, 이제 어찌된 일인가? 예뻐보이는 보이던 남동생 여학우들에게 경계하는 미명아래 집단폭행을 당했다. 당찬

결의도 좋지만 무슨 여자의 힘이 그렇게 센지. 부서진 몸을 이끌고 노천극장에 갔을 때 복이 몸의 일부인 듯한 복을 보며 입을 다물수 없었다. 서남충원학우들과 같이 춤을 출때 모두 일어나 ‘전대협 전진가’를 부를때 뜨거운 동지애와 조국통일에 대한 열의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손잡고 강강수월래를 할때, 돌이와 막걸리를 마실때 내 가슴에 새겨진 통일에 대한 열의로 가득찬 동지들의 열정이 지금도 생생하다. 하얀목련이 피는 소리를 들으며, 추상적으로 생각해온 통일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우리와 학우들과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또, 선배님들에게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정말로 무거운 고민거리를 얻은 것 같다. 앞으로 이 고민거리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힘차게 생활하면서 학우들의 가슴에 통일의 꽃을 피우겠다. 마지막날 졸린 눈을 비비며 떠날 준비를 하는 나에게 ‘우리 전대협 출범식과 범민족대회에서 만나요’라며 손흔들며 애원 여학우의 도량 모란한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울린다. 지금쯤 목련이 다 졌겠조. 원광대 학우들 육쫓았습디다.

강 원 구 <경상대 경제학과>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3당야합 역사적 실패 ‘민자참패’(4면)

독자들과의 약속인 배포일 정확히 지켰으면 총선후 구체적전망-대응방안 제시못해

제1095호 1면 ‘알람’을 보자. “신문배포가 늦어 사과드립니다. 다음 신문(1096호)은 신문사 일정 관계로 한수습입니다.” 매우 수월하다 배포되는 신문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부요일이나 금요일에 나오기 가끔씩 쉬기도 한다. 매주 수요일마다 배포하기로 한 것은 학우들에 대한 약속이다. 학우와의 약속 파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조와 계획속에서 나오는 신문의 단결성이 더 큰 문제이다. 1095호가 배포된 이후 동학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정성대 단식농성, 학과장의 학생회장에 대한 함용계공, 동부 정리 분위기, 각급 학생회에서의 총학생회 비판 대자보... 동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동대신문으로 파악하는 많은 학우들에게 있어서 신문의 한 주 휴간은 독자의 알권리에 대한 외면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제1095호 4면에 실린 3당 야합 역사적 실패 ‘민자참패’ 제하의 기사는 14대 총선의 결과를 비

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했으나 총선후의 구체적 전망이라든가 우리의 대응방안이 빠진 것이 아쉬웠다. 3월25일자 신문은 총선후 새로 시작한 동투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동투에 관한 내용이 많았으나, 신문사 자체의 동투에 대한 대안제시가 미흡했다. 대안제시는 총학생회의 동투·학자부에 대한 지도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무 회<사회대 사회학과>

목 먹 골

동학! 광장

■지난달 26일 강도에게 등에 9군데, 손에 1군데를 찔러 현재 백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해운가동지’ 탁아교사 변미영(국문90출)선배님의 병원비를 마련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종은행 313-04-290720(예금주:원보영)

축하합니다

■황남기의 외부고시 2차합격을 축하하며...
-인철'87 동기 삼돌이가
■국과 신입생 환영공연을 축하합니다. 풍파타할때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애기들을 만들어봐요.
기특하다. 장하다. 용한·문수·재원!! -林'91은주, 선희
■자축합니다!!
동대신문사 제34기 수습기자 여러분!
-호애, 상수, 상현, 대규, 인준, 근형, 재철
■국과 의 은경쓰, 혜성쓰의 생일을 축하해쓰!
-이뿐2
■4월6일 귀여운 상구(독문91)의 생일이래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축하해요!
-남궁은
■'탈'회장, 재성이의 생일을 축하한다.
-진이
■수정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S-K
■생일 축하한다!
-인철과 눈이 작은 친구에게, 선학과 눈이 까만 친구가

■인철신문 장간을 축하합니다. 힘들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해주세요.
-인철과 회원증 소지자 여음국
■불교학과 새내기 셋벌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들을처럼 예쁘게 살아가길 빌면서.
-너를 사랑하는 동기 미순이
■세라에게
진달래의 붉은 기운이 삼천리를 휩쓸고 있는 이 아름다운 봄에 스무번째 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연경
■林'90C.C 언니(민경)와 형부(기문)의 눈물없는 재결합을 기원하며...-처제young과 eun이 P-S언니, 형부존 그만 때려!
■제24대 농과대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92 해운
■수학과'86 김용선(3월28일). 당신의 작은 그리고 소중한 이념을 축하하며, 우리의 모임이 당신을 사랑함을 잊지 마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정우희

알립니다

■'방'이 11~12일 신입생환영모포지를 갑니다. 잘 갔다올 겁니다. -선박가
■국어국문학과와 신입생 환영연이 4월13일, 14일에 열려 4회의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문과 희곡분과과장
■한신고 동문M.T 갑니다.
■한신고 동문M.T 갑니다. 동국대학교 '길'회는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회장이나 총무에게 연락바랍니다. 갑니다. 4월11~12일, 장소는 강촌.
■기공과가 확실히 화회선이 마련됐어요. 입방식이 곧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성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영문과 기·총
■무역과 MT 갑니다.
신입생과 선배의 화합의 장이 되길 빌며... 4월10일~12일까지 셋터로 갑니다.
-어는 미친 무역인이
■대일동문 MT가네. 11~12일 청평으로 떠났는 MT가 되길 바라며, 신입생 여러분과 멋진 밤을 기대한다.
-대일 16기
■전동차 여러분!
3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학생회관 3층에서 연동원을 개강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장에서 부처님의 인연을 만나십시오.
-불교학학회
■민중미학연구소가 야유회

를 갑니다. 토, 오전10시, 선배·동기를, 앞으로 민·미·연에 들어오고 싶은 신입생 여러분, 오십시오. 함께 갑시다. 예비모임, 금, 5시 학생회관 3층, 독심방, 역·교과 3학년 XX씨 오십시오.
■사우회 MT 갑니다. 11~12일, 신입생에게 멋진 날이 되기를 빌며. -사우회 '91
■MT 갑니다. 동국대학교 '길'회는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회장이나 총무에게 연락바랍니다. 갑니다. 4월11~12일, 장소는 강촌.
■기공과가 확실히 화회선이 마련됐어요. 입방식이 곧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성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영문과 기·총
■무역과 MT 갑니다.
신입생과 선배의 화합의 장이 되길 빌며... 4월10일~12일까지 셋터로 갑니다.
-어는 미친 무역인이
■대일동문 MT가네. 11~12일 청평으로 떠났는 MT가 되길 바라며, 신입생 여러분과 멋진 밤을 기대한다.
-대일 16기
■전동차 여러분!
3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학생회관 3층에서 연동원을 개강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장에서 부처님의 인연을 만나십시오.
-불교학학회
■민중미학연구소가 야유회

一智·땃·大路를 추구하는 동대한민화회
■정경고시동문 여러분의 임학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신입생환영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는 4월4일 PM5시30분~9시. 장소는 방승통신대학내 국제회관(74)~4546). 대상은 신입생 및 재학생, 졸업생이고 문의는 537-6047로.
-전국대학 검정고시 연합
■수고하셨습니다
■입학과 학우 여러분! 연합MT 수고했습니다. -92
■어려운 여전속에서도 MT를 무사히 마친 야간강좌와 92들에게 감사합니다.
-철과함
■금강산통로회 회원여러분! 유미, 세라, 성진, 현숙, 현주, 주연, 지현, 정현, 인우, 재필, 성주, 상우, 순철, 재철, 남평, 진숙, 정호, 공영형! 신입생환영회 및 모포지, 수고하셨습니다.
-건수
■헌영합니다
■생활속에서 예술을 찾고 싶으신 분, 예술속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 문·예·미술·가을·겨울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민중미학연구소
■92신입생들의 K·C·C가족이 되신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C·S·D

■민중사연구회는 동아리의 꽃이다. 신입회원을 아직도 (/) 모집합니다. -90박형
■평균을 신입회원 여러분! 저희 동아리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林'89준재
■열심히 합시다
■입학과 91동기들이여! 새봄이 우리의 깊은 꿈을 깨리고 손짓을 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잘해 봅시다.
-화이팅 / 91
■林'90 / 동지들! 살고 싶은 꿈을 이루는 데에 여러분. 동지들! -young
■공부하는 학자의 분위기를 이끄는 철단·생의 핵심 연구실인 공존사이여! 영원히 번영하길 바라구요. -마스코트
■반대 풍물대 신입패원인 용문, 문자, 준주, 광재 / 너희들을 사랑한다. 생활 열심히 해라한다. 꼭!
-법과대 문화부장
■열심히 합시다
■생활속에서 예술을 찾고 싶으신 분, 예술속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 문·예·미술·가을·겨울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민중미학연구소
■92신입생들의 K·C·C가족이 되신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C·S·D

은방골

■동을 미니콘서트가 4월9일 5시 소정당에서 있습니다. -동을

축하합니다

■19일은 사복과 은경이의 탄생일입니다. 많이많이 축하해주세요.
■지난 4월1일은 사랑스런 일문과 '용달이' 생일이었던날이요. 진심으로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양드레구와 악마들
■순애야 / 이일부터 너와나의 운명적 사랑은 시작되셨나 보다. 봄바람 불어오는 이날은 사랑의 씨앗을 보낸다. 4월18일 너의 탄생일을 축하하며... -상룡
■그리고...
■정보관리학과 화이팅 / 9일~10일에 있는 상경대제전에 전체우승이라는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는 정보관리학과원입니다. 그리고 나! 혼신속구하고 싶어. (히히~)
-누굴까? 암전하고 착한 부니랜다.
■진 시간동안 군복무에 충실할...이라류. -영주가

시스템 안전에 유의... "감염막는다"

컴퓨터 바이러스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창작집발간, 단체소식지의 발간이 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없이 워드(한글)만을 이용하는 학생들 사이에 적합한 당혹감이 발생하는데 현실이다. 이른바 컴퓨터바이러스의 감염은 '컴퓨터AIDS'라 불릴 정도로 확산이 심하고 또 종류에 따라 시스템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에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증상, 치료방법을 소개해 부지불식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태를 최소화하고자 이 글을 실는다. (편집자)

얼마전 미켈란젤로라는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떠돌았던 일이 있었다. 사실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바탕은 경험해 보았을 만큼, 지금까지 컴퓨터 바이러스의 확산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이르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백신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컴퓨터 바이러스는 언제 당신의 컴퓨터에 침입해 올지 모른다.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대책과 함께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1. 컴퓨터 바이러스의 정의

컴퓨터 바이러스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바이러스가 아니고,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 다른 시스템에 자기복제를 함으로써, 마치 바이러스가 감염된 듯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용어는 1983년 프리드릭 호프 박사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즉 '컴퓨터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에 붙어 들어가 시스템이나

데 이같은 분류는 시간적으로 볼때 별래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를 거쳐 컴퓨터 바이러스로 전환,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변천사라고 해야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3. 증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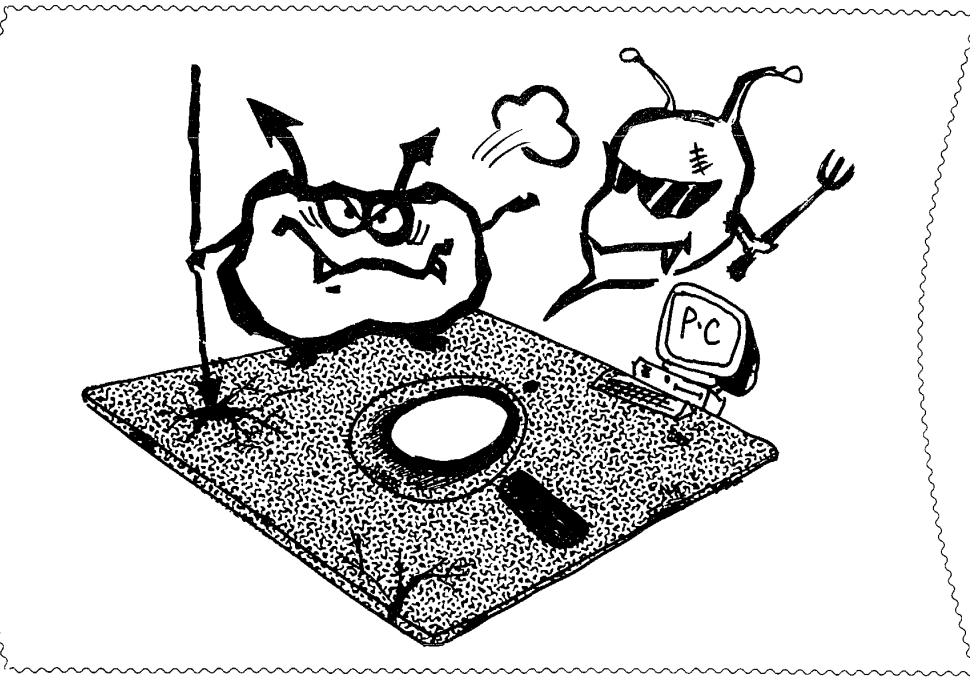
종류 못지 않게 그 증상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증상이 보일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의심하면 좋을 것이다.

·갑자기 눈에 띄게 속도가 느려

4. 특성과 동작원리

컴퓨터 바이러스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다음 두가지의 큰 특성을 따르고 있다. 하나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우선되어 실행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다른 시스템에 자기 복제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우선되어 실행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한번 감염된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염되지 않은 도스로 부팅시킨 후



바이러스 자기복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 백신 프로그램 이용해 바이러스 감염여부 검색해야 쓰기방지 탭 붙여 감염우려 대비 필요

사용자 프로그램에 자신을 복제하고 시스템과 파일들을 파괴하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2. 증 류

지금까지 밝혀진 컴퓨터 바이러스만 해도 수백가지가 넘는 만큼 그 종류가 다양하고 증상 또한 가지각색이겠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컴퓨터 바이러스는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양성 바이러스와 악성 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다. 양성 바이러스란 직접 시스템이나 파일은 파괴시키지는 않고 다만 어떤 메시지를 나타내는 데에 그치는, 비교적 피해가 적은 바이러스를 말한다. 이 경우 파일 크기가 늘고 처리속도가 저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양성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시스템까지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아주 해로운 바이러스이다. 국내에서 많은 말썽의 대상이 되어왔던 LBC바이러스가 여기에 속한다.

플루트 플러스라는 유명한 백신 프로그램을 만든 로스 그린버그는 바이러스 계통의 프로그램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하나는 별대 프로그램으로서 시스템에는 직접 영향을 끼치지나 감염되지 않고, 시스템 내에 계속 자신을 복제만 하는 프로그램. 자기복제, 감염성 모두 없으나 정상적인 코드 속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파괴시키는 코드가 들어있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 그리고 증식, 감염뿐 아니라 시스템까지도 파괴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런

전다.

·특별한 물리적인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일을 읽지 못하거나 실행을 하지 못한다.

·드라이브를 읽지 못한다.

·파일 크기가 달라졌거나 볼륨 라벨이 바뀌어 있다.

·화면에 이상한 메시징, 또는 그림이 보인다.

일단 위의 증상이 눈에 띄면 곧바로 백신 프로그램으로 감염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이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이러스 제작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적인 증상 외에도, 감염되면서 부트 레코드를 파괴하거나 섹터를 불량하게 만들고, 또 자신이 기생하는 만큼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만일 감염된 도스로 부팅이 되었을 경우,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도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먼저 실행되기 때문에 백신 프로그램마저 감염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되어 실행시키는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초기 컴퓨터 바이러스는 실행가능한 파일 확장자의 우선순위를 이용하여, *.EXE이 존재할 때 같은 이름의, 확장자가 COM인 컴퓨터 바이러스 파일을 만들어 EXE파일을 실행시킨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먼저 실행하게 만들기도 했다. 최근에 발견된 DIR II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각 디렉토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시작위치를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시작위치로 바꾸어 먼저

◇자매대학 파견 교환학생 선발제도

본교의 많은 학생들이 여태까지 홍보의 부족 탓인지 '자매대학파견 교환학생 선발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해외장학금유학의 혜택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본 선발제도는 본교와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한 해외의 대학들에 우수한 본교학생들을 파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국제간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의 교수요원을 육성한다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92년 4월 현재 본교와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한 해외대학은 5개국 13개교이며 본교학생의 해외자매대학 파견도 1980년 이후 20명에 육박하고 있다. 많은 해외자매대학중에서 교환학생 파견이 가능한 대학은 <표>에 정리된 것처럼 4개국 7개교에 이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교의 교환학생파견은 세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의 파견이며 미국의 이스턴 워싱턴 대학교, 뉴욕주립대학교, 일본의 대정대학, 동국대학교 그리고 독일의 레겐스부르크대학교 등이 그 대상학교에 포함되고 있다. 둘째는 학점교류가

(표) 교환학생파견 가능 해외자매대학 현황

지역	대학명	파견과정	파견대상	특 점	지적요건	선발방법
미	이스턴 워싱턴 대학교	석사과정 2년	통교개설 학과	2년간 학비면제, 기숙사 제공	①본교학부졸업생 ②영어성적 3.5이상 ③TOEFL 550이상 ④GRE, 1200내외	①89년 1월중 1명 ②94년 1월중 1명
	뉴욕주립 대학교	박사과정 2년	통교개설 학과중 지정학과	1년간 학비면제, 기숙사 숙식무요	①본교학사·석사 학위소지자 ②영어성적 3.7이상 ③TOEFL 600이상 ④GRE, 1200내외	92년 6월중 2명(1명은 비교학과 지정, 나머지 1명은 사회과학전공 지정)
일	대정대학	석사과정 2년	통교개설 학과	2년간 학비면제, 기숙사 제공	①본교학부졸업생 ②영어성적 3.5이상 ③일본어 능통자	①89년 1월중 1명 ②94년 1월중 1명
	동국대학	석사과정 2년	통교개설 학과	2년간 학비면제, 기숙사 제공	①본교학부졸업생 ②영어성적 3.5이상 ③일본어 능통자	94년 2학기중 1명
독	레겐스 부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1년	통교개설 학과	1년간 생활비 지급 (학 비는 무료)	①본교학사·석사 학위소지자 ②영어성적 3.7이상 ③독일어 능통자	92년 2학기중 3명 예정
	로스카바 상립대학교	1학기내 단기연수 과정	사비연수원칙이나 경비절감, 연수 수료율 높음	1학기내 단기연수 과정	본교학부 또는 대학원 학생	93년 1학기중 10명내외
독	세프킨 에센대학교	1학기내 단기연수 과정	사비연수원칙이나 경비절감, 연수 수료율 높음	1학기내 단기연수 과정	본교학부 또는 대학원 학생	93년 1학기중 10명내외

주: 1) GRE Aptitude Test 중 Verbal Section과 Quantitative Section Scores의 합계를 의미함
2) 선발예정일은 양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4개국 7개교 가능... 학비·기숙사제공 등 혜택 많아 장래 교수요원 육성 목적에 못미치는 지원을

가능한 한학기 또는 두학기간의 재학생 중기연수로서 최근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한 일본의 동국대학교와 협정대학을 진행중에 있다. 선발과정은 3차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차는 서류전형으로 학교성적, 전공일치여부, 외국어 테스트성적, 추천서 등을 종합 평가하며 2차 필기시험시에는 해당국언어 독해와 작문능력을 증명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 3차 면접시험에서는 해당국언어 회화 테스트 및 일반면접이 실시되며

원장에 부총장, 부위원장에 기획조정실장, 위원에 해당언어학과 교수 3인, 담당 코디네이터, 그리고 국제부장이 포함되어 있다. 선발과정은 3차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차는 서류전형으로 학교성적, 전공일치여부, 외국어 테스트성적, 추천서 등을 종합 평가하며 2차 필기시험시에는 해당국언어 독해와 작문능력을 증명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 3차 면접시험에서는 해당국언어 회화 테스트 및 일반면접이 실시되며

원장에 부총장, 부위원장에 기획조정실장, 위원에 해당언어학과 교수 3인, 담당 코디네이터, 그리고 국제부장이 포함되어 있다. 선발과정은 3차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차는 서류전형으로 학교성적, 전공일치여부, 외국어 테스트성적, 추천서 등을 종합 평가하며 2차 필기시험시에는 해당국언어 독해와 작문능력을 증명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 3차 면접시험에서는 해당국언어 회화 테스트 및 일반면접이 실시되며

송 민 수

(기획조정실 국제부 직원)

자신을 실행하게 만들어 놓았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램상주 방법이 있는데, 이는 부팅할 때 램에 로드되어 계속 상주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 디스크 관련 인터럽트인 13h BIOS 인터럽트를 가로채어 자신이 먼저 실행되는 방법이다. 얼마전 메스컴을 통해 보도되었던 에루살렘 바이러스 역시 이 종류이다.

위와 같이 먼저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원래 실행하려고 했던 파일이 들어있는 시스템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그래서 만일 감염되지 않았다면 감염루틴을 실행시켜 자기복제를 하고난 뒤 원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미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감염시키지 않고, 곧바로 의도했던 동작을 하거나 원래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감염여부의 판단은 특정 섹터의 검사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대부분의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어느 특정 섹터에 자기 고유의 코드를 갖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브라운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4, 5 번째 위치에 34h, 12h 값을, LBC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6, 7 번째 위치

에 45h, 68h 값을 갖는다. 때문에 다른 시스템의 같은 위치를 검사하여 자신의 코드와 같으면 감염된 것이고, 다르면 아직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백신 프로그램이 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진단할 때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5. 치료와 예방

다양한 컴퓨터 바이러스의 심각성 못지 않게 이에 대응하는 백신 프로그램 역시 매우 많이 개발되어 왔다. 백신 프로그램은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감염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바이러스 프로그램 부분을 없애고 원래의 내용을 복구하는 기능을 한다.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에는 반드시 아직 감염되지 않은 도스로 부팅시킨 후 실행시켜야 하고, 쓰기방지 탭을 붙여놓는 것이 앞으로의 감염우려에 대비해서 좋다.

현재 나와 있는 백신 프로그램으로는 외국에서 만든 SCAN, SCANRES, CLEAN, VCHECK, Norton Anti-virus 등이 있고, 국내 작품으로 V3, V3RES 등이 있는데, 이중 V3는 안철수(고대교수)씨가

그후 모든 과정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교환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본교 국제부에서는 공정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우수한 본교학생의 장학금유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외유학에 뜻을 가진 동국인들의 치밀한 사전준비와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

송 민 수

(기획조정실 국제부 직원)

만든 것으로, 최근 90여가지의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검사할 수 있는 V3 90가지 개발되어 국내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를 체크·치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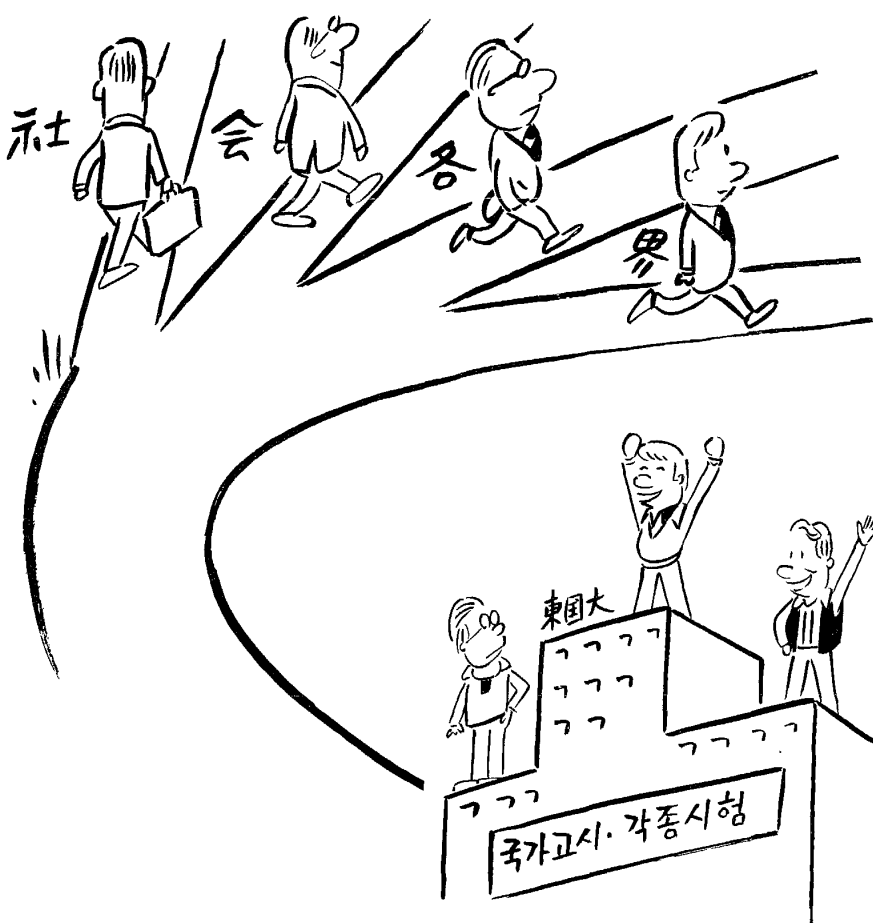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치료도 중요하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한번 치료된 시스템이 다시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스등의 중요한 디스켓은 반드시 쓰기방지 탭을 붙여두는 것이 좋고, 다른 외부 디스켓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먼저 검사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단 실행하면 계속 램에서 상주하여 파일을 실행하고 검사하는 V3RES를 실행하고 사용하면된다. 또는 AUTOEXEC.BAT를 이용해 부팅하여 먼저 백신 프로그램부터 실행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의 관심과 주의이다. 꼭 자기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그 시스템의 안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진 수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1 말 2초" 라고 하는데...

첫단추가 중요합니다



대학가 유행어중에 "2말 3초"라는 게 있습니다. 2학년 말, 늦어도 3학년 초까지는 쓸만한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같은 "2말 3초"이론(?)은 대졸 취업준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2말 3초"보다는 "1말 2초"가 더 설득력이 강합니다.

1학년 말, 늦어도 2학년 초까지는 졸업 후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펼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취업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인생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학 생 처 장

취업자료실 이용 안내

1. 개방시간: 10:00 - 15:00
2. 설치장소: 본관 동쪽 현관
3. 비치자료

가. 기업체 관련자료 및 채용정보
나. 기업체 사보
다. 입사시험 기출제 문제집
라. 기업체별 동문현황

4. 기타사항

가. 취업파에서 취업정보 상담
나. 야간강좌 학생들은 전화상담 가능함: (2260-3054/5)

부업알선 안내

1. 부업종류

관공서, 일반회사 업무보조, 외국어 번역 및 통역, 원고교정, 설문지 조사, 금융기관 야간경비, 경찰서 방법, 주차관리, 이벤트 진행 보조 등등.

2. 부업신청 방법

가. 매학기초 학생처 취업과에 부업신청서를 제출 (소정양식)
나. 취업과 부업 게시판을 보거나 취업과내 부업의뢰 접수철을 참고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부업을 선택하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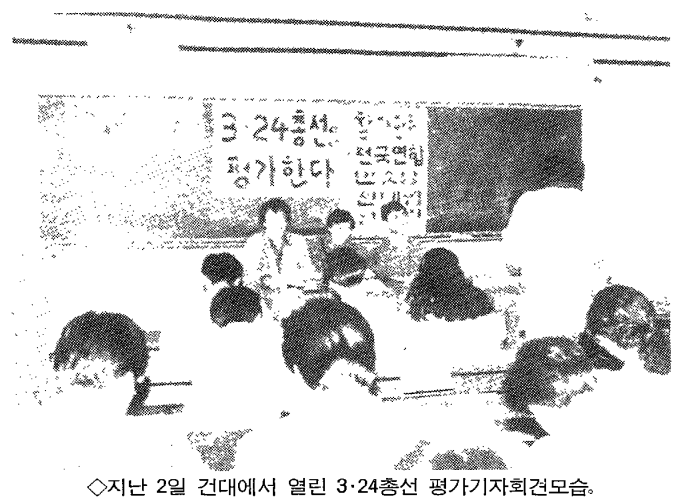
◇ 3. 24 총선평가 기자회견

민운진영 통일전선 모색 시급

‘제14대 총선평가를 위한 기자회견’이 전국연합, 민중당, 전대협, 선투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2일 전국대 학생회관(303강의실)에서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서대기련)주최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대기련 중앙상황실이 각 계약단체에 보낸 삼각가단체 특성에 맞는 총선결과와 논평△사태평가에 바탕으로 한 각 단체의 총선투쟁의 성과·요류·한계△총선투쟁의 교훈과 대선투쟁에 필요한 정치조직적 과제 등의 질의서에 대한 기초발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참가 4개 단체의 총선평가는 내부적으로 총화된 상태가 아니며 4월말 총화한 평가서와 대선에서의 투쟁방향이 구체적으로 제



◇지난 2일 건대에서 열린 3·24총선 평가기자회견모습.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대중투쟁체로서의 성격은 지닌 선투련은 학생단위에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을 대표하였다.

총선에서 민중운동은 패배하였다. 민주당, 국민당, 무소속 모두 지배세력으로 규정된 이상 14대 여소야대 국회는 빗줄은 개입구이며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조직에 불과하다. 민중운동은 패배를 당했음을 인지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범보수진영의 공세에 무력화되어가고 있음으로 그속에서 민중의 무권리는 계속 심화되어 갈 것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민중진영은 총선패배에 대한 겸허한 인정과 대선시기 민중의 독자 후보 노선에 동의하는 세력들의 단결을 중심으로 민중진영의 결사개편을 이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는 국민당의 돌풍을 민주당의 대안으로서 민주당보다 국민당에게 정치개혁을 기대한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서 비롯된 ‘사표질리’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정치풍토는 이후 대선이나 민진진영에 호전된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민자참패는, 3당야합이 지역적 한계(호남대 비호)의 정치구도를 깨뜨리지 못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현재 민자당내의 대권후보 경선유지론은 이것을 당대 민주당의 확립으로 이용하려는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이병민 기자)

민중당해체...민중진영 질서개편 필요 대중투쟁통한 전국연합 조직강화 요구

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의 총선평가를 요약해 실는다.

(편집자)

전국연합

보수야당의 향후 진로와 민진진영과의 세력재편 전망을 중심으로 평가했을 때 민주당은 총선결과를 토대로 자신감을 갖고 대선을 준비할 것이다. 한편 차기 주도권 문제와 관련하여 내부세력파동의 분화가 서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평민전, 신민전, 민주연합 등으로 나뉘어 있는 진보개혁세력의 통합 혹은 제휴가능성이 높다.

대선이전의 정세개편은 무소속의 정당가입 정도만이 부분적으로 이뤄지리라 전망된다.

민진진영은 총선에 대한 몇가지 다른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세력변화가 오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민중당, 민정우, 민중회의 간에 조직적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민주주의 민주대연합을 실현하기위해 설정한 연합공천을 통한 범민주 단일후보추진들은 실현되지 못했다. 연합공천을 거부한 민주당의 태도는 명백히 잘못됐다. 그러나 아직 민주당을 민주대연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후보 지지·지원결혼은 각 정치세력과 연합하기 위해 채택한 것으로 26명의 후보중 6명이 당선됐으며 5명의 후보가 경합을 보이다 2위로 낙선했다.

그러나 총선투쟁에서 전국연합의 방침이 대중적 결의나 의견수렴없이 주로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돼 대중투쟁을 곤란히 하진 못했다. 또 후보문제에 너무 얽매인 오류도 범했다.

이후 전국연합의 주된 사업은 대중투쟁 속에서의 조직력 강화이며,

민중생존권투쟁, 3대 부정선거 규탄투쟁 등을 상반기 투쟁기조로 삼고 있다.

민중당

이날 총선결과와 가장 큰 특징인 ‘국민당돌풍’은 자금동원력, 공천탈락자 중심의 후보진출, 대기업으로서의 조직력에 기인한 결과다. 그러나 국민당 돌풍의 주요인을 오히려 국민들의 ‘반민자·비민주’라는 정치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민자당의 대안을 민주당보다 국민당에서 찾으려했던 의식이 국민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든 것이다.

현재 민중당은 1.5%의 득표율(총30만표)로 해체된다. 88년 13대 총선에서 0.33%의 득표율로 ‘민중의 당’이 해체됐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민중당의 득표율은 확실한 지지자들의 표였고 50%에 달하는 부동층의 표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해체의 결정적 원인이다. 이는 당세의 취약함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는 진보정당운동의 대중적 토대이며, 국민당이 정치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한 이상 진보정당의 사회적 입지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후 민중당의 진로에 대해 제창당한 후 대선을 준비하지는 것과 대선에서의 성과를 보고 강화된 형태의 재창당을 모색하는 입장이 논쟁적이다. 대선은 진보정당운동의 결집점이 될 것이다.

전대협

이날 총선은 14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출발시켰다. 그러나 민진진영의 조직적 힘의 부족과 합법전술 운용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민진진영의 조직적 힘의 한계는 이후 대선에서의 민진진영의 대응에 교훈과 과제를 남겨 주고 있다.

전대협은 전국연합의 방침에 기 반하라는 노력을 보이며 △선거자율운동 △공명선거감제 △반민자 선거투쟁을 벌였는데 민자참패에 일정정도 기여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회 일상사업과의 관계와 해명이 전개되지 않고서는 전체 간부역량과 대중역량을 1배로 발돋움 수 없음을 확인한 경험이며, 비상시기 사업의 원천과 간부의 자제와 결의, 그리고 대 사업의 결집지점을 구체적인 지침으로 미리 고민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 결실한 향후 과제라고 밝혔다.

동막로

“정각원 선실화 사건에 대해 우리 불교도연합회는 정범수호와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민중의 스승 불타와 7천 온방을 학우들 앞에 진심으로 참회한다.”

지난달 새벽3시경에 발생한 정각원화재에 대한 불교도연합대책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한 대자보가 다음날 학내 곳곳에 붙었다. 또 3일 오후3시경에는 사후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학교측대책위원회에서 도경감식관을 불러 사건을 철저히 경중을 하느라고 분주히 움직인다.

불교도연합대책위원회(공동회장=정장순·불교3, 성관·불교2)는 “어떻게 신성한 불단에 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지난 88년 12월8일 도서관 내 정각원 방화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으며, 또다시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경

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불교도연합대책위원회에서는 대자보를 통해 학교당국에 정확한 진상규명과 진학이념구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측에서는 감식관의 감

법당 수난시대



정을 통해 ‘인위적인 방화’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조속한 선실복구, 사후대책마련을 위해 노력중이다. 사고당시 정각원에는 소화기가

◇해방이후 불교계의 질곡

1.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실 이렇게 시기가 빠른 줄은 몰랐다. 특정정당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행각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진행될 줄이야. 이번 총선보다는 대선 시기를 염두에 두며 우리(불교계)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집중되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최소한 87년 당사와 같은 대외적 망신만은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의의 이면에는 최소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별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소박한 기대(?)가 자리

(기독교의 표를 의식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불자 아닌 불자, 노태우’를 87년 10월 31일 봉은사에서 서원장은 기원법회를 성대하게(?) 치렀던 것이다. 그 때를 좀 더 생각해보자. 당시 노태우씨와 함께 대통령 후보로 나선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경을 놓고 대통령 선수를 하겠다’는 등, 그의 종교적 신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을 때 충당을 포함한 불교계 전체가 발끈했던 기억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탐의 모 가지를 비둘기도 새끼는 온다’라는

관림)이 마련되었고, 내부적으로 그에 대응할 만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당하기만 하기가 일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최근의 총단 동향을 보면 오히려 더 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불교혁신세력 귀중한 경험을 우리는 기억한다. 일제식민지하에서의 단결이 그렇고 미군정하에서의 불교혁신총연맹이 그렇다. 이들의 주장과 그속에서의 뼈저린 경험에 말해주는 것은 불교의 문제가 오로지 불교교유의 문제만은 아

오늘도 이어지는 종권상충부의 정권유착

“반외세 민족불교의 제모습 보일 때”

참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대선에 비해 총선이 가지는 상징성 등이 그다지 크지않기 때문에 발생부터 서둘러 노골적인 친정 부각 발언이나 빈화 등을 자행하는 양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는 듯도 하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이제 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87년 대선시기 그렸고 그의 종단과 정권과의 유착 및 상호공생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 이미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불자여야한다’에서 ‘불자가 아니어도 좋다’로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머릿에서 떠나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87년 대선 대통령 선거 당시 현 서원원 총무원장이 ‘노태우후보 당선 기원법회’를 여는 이유를 설명할 때 유일한 게 제시된 것은 그가 ‘불자’라는 것이었다. 노태우씨 본인은 극구 불자가 아님을 간절히 호소했지만

우리 가슴에 길이 남을 말씀을 많이 남긴 분” “변절자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3당합당이라는 구국의 결단을 내린 분” 등 ‘비불자’에 대한 갑작스런 태도변화의 요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존권보장(?)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인가? 아니면 남다른 정치적 안목에서인가?

우리는 종교, 특히 우리자신 불교의 현재적 모습을 이야기 할때 항상 지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종권상충부와 정치권력과의 상호협조 및 유착관계이다. 그리고 내부로부터 정착해 온 그 구조적 요인 역시 놓칠 수가 없다.

‘불교의 존속’을 우리는 지금도 비전하여 도성출입이 급지... 대대적사각하에서 이만타국에 오서서 널리 자비를 베푸시니...이 나라의 한 승려로서 감사하고 치하하는 바입니다.”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시된 조선승려의 ‘도성출입금지’가 일본군 사노에 의해서 해제되자 당시 수련 용우사의 상순스님이 감격에 찬 어조로 한 말이다. 또 제1공화국 당시 정권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종권에서는 ‘불가피했다’ ‘합일정신이 골수에서 사무친 이대통령’ 등 찬사를 아끼지 않은 적도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우리종단의 행정수반들이 밟아온 과정들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도대체 무엇이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쓰러져가는 불교의 사회적 위를 걱정해서도 아니요, 더구나 애국애종적 사고속에서 발현된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8.15이후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단과 미군정, 이승만에 이르기까지 역대 독재정권에 의해 ‘식민지정착’의 도구화, 불교사상의 왜곡·속에서 기인한 것이며, 8.15이후 우리 스스로의 자율성에 기반한 질서회복과 종단운영이 철저히 저지당한 채 불교의 질곡은 더욱 깊어만 갔던 것이다.

일제당시의 사찰령이 미군정하에서 그대로 존속, 재현되었고 이승만 집권시대에는 정치적 책략에서 ‘정화유사’가 치뤄져 종단이 분리되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승려들끼리 난투극을 벌이게까지 했다. 3공명 정치적 사녀역할이 충실히 보장되는(?) 제도적인 틀(불교재산

이라는 것과 역시 전민족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지 못하는 한 불교내부 문제조차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약한 생명력만을 보존하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보다 합이센 집단(정권)에 의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주체적이고 자주성이 결여된 결과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현실로서 증명되고 있다. 그런 결과를 낳은 행동이 결론적으로 불교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애국애종적인 처사라는 거리가 먼 것이다.

4. ‘종교의 정치참여’ 그 진정한 의미와 방식

우리는 흔히 ‘종교분립’을 주장한다. 또 정치에 관한 ‘종교의 중립’도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인)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할 때가 있다. 그것은 종교가 지향하는 이상(평등, 평화, 정의)이 정치권력에 의해 타격을 받거나 침해를 당할 때 그 이상실현을 위해 종교는 자기 목소리를 아낌없이 내야한다.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된 정파를 지목할 경우에도 그 원칙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불자’라는 꼬리표 하나만을 믿고 우리가 떠돌아 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굳이 ‘불자’를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이기주의나 신앙의 형태를 지적하는 차원이 아닌 그가 지닌 진정한 불자의 심성과 실천행(보살행)이 뒷받침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호기를 맞이한 ‘먹고살 쟁기’로 교세가 확장될리 만무하고 그렇게 확장된 교세가 합리대로 결코 오래갈 리 없다. 사실 교세확장의 측면은 물론이고 그나마 불교가 제모습을 갖추어 이제까지 제구실을 해 나갔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먹고살’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불법(佛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수행정진한 사부대중에 의한 것이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인간해방사상으로서의 불교사상이 지배권력과의 결탁으로 인해 왜곡된 것은 채 역사를 거슬러 전 행하는 사상적 결점일지, 불교자본주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배 금 자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3							5							7							9							11							13							15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8	9	10	11	12	13	14	8	9	10	11	12	13	14	8	9	10	11	12	13	14	8	9	10	11	12	13	14	8	9	10	11	12	13	14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5	16	17	18	19	20	21	15	16	17	18	19	20	21	15	16	17	18	19	20	21	15	16	17	18	19	20	21	15	16	17	18	19	20	21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2	23	24	25	26	27	28	22	23	24	25	26	27	28	22	23	24	25	26	27	28	22	23	24	25	26	27	28	22	23	24	25	26	27	28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9	30	31					29	30	31					29	30	31					29	30	31					29	30	31					29	30	31				
5							6							7							8							9							10							11						
19							20							21							22							23							24							25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8	9	10	11	12	13	14	8	9	10	11	12	13	14	8	9	10	11	12	13	14	8	9	10	11	12	13	14	8	9	10	11	12	13	14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5	16	17	18	19	20	21	15	16	17	18	19	20	21	15	16	17	18	19	20	21	15	16	17	18	19	20	21	15	16	17	18	19	20	21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2	23	24	25	26	27	28	22	23	24	25	26	27	28	22	23	24	25	26	27	28	22	23	24	25	26	27	28	22	23	24	25	26	27	28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9	30	31					29	30	31					29	30	31					29	30	31					29	30	31					29	30	31				

물소리는 모두 다르다!

물소리
여러분은 몇 가지의 물소리를 알고 계십니까?
옛날 어느 선비는 똑같은 강을 아홉번 건너던
체험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내가 두려웠을 때는...
내가 평온했을 때는...”
그 선비는 하룻밤에 강을 아홉번 건너면서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하찮은 잡물에서도 여러가지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기운이 감도는 4월
캠퍼스의 4월은
색다른 체험을 위한 발상 대전환의 시간입니다.

문화달력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련한 소중한 대학행사를 알리기 위해
현대그룹이 제공해 드리는 문화 달력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널리 소개하고 싶은 문화행사가 있으면 행사 전일 25일까지
현대그룹 문화부(서울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746-3347)로 알려주시면 성심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악 2년후

복권판결도 재단 앞에 무력

어제(7일)는 1990년 3월16일 사립학교법이 제1백48회 임시국회에 서 전격 통과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이다.

이 법은 90년 1월 집권 민주당과 보수야당이 야합하여 결성한 민자당이 국회의장을 장악하여 처음으로 통과시킨 일련의 법안 가운데 하나로 민주당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통과 당시 문공위원장이 야당의원인 관계로 야당 또한 골치없는 시선을 받았다.

사학재단의 대표자들의 모임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88년 8월에 제안했던 내용들만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문공위원회의 대안'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수많은 개정청원과 개정운동을 거쳤던 당사자들은 물론 언론에서조차 모르는 사이에 임시국회 마지막 전격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사학의 자주성'이라는 이름으로 사학재단

인하여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그 원인을 시정'하고 있는가? 또 문공위원회의 제안 이유처럼 '사학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축소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직의 안정과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법인의 주장도 교육부의 주장도, 또한 문공위원회의 제안이유도 6공 들어 더욱 강화해진 통치 일환의 교육정책에 불과하고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은 사학재단의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직원 신분을 극도로 위협하는 물론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하였고 사립대학의 무질서나 혼란이 주로 재단과 관련된 비리나 권한 남용에서 비롯되었는 바 교육부가 주장하듯 '설립자들의 투자이익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사학의 자율경영의 여지를 크게 강화시

것이다.

우선 사립학교법 통과 이후 첫 회생자는 덕성여대의 성낙동(교육학) 교수였다. 탈락사유는 연구실적 미비나 교수능력 부족이 아니라 인사고과점수 불량이었다. 인사고과점수불량의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자 학교당국에서 밝힌 사유는 '학생시위선봉'과 '총장실 난입주도'였다. 그러나 이것은 성교수가 학생회가 추천한 집회에서 총장선출에 대한 평교수협의회회의 공식입장을 전달하는 교수중의 일원이었으며 또 87년 1학기에 평교수협의회 대표의 일원으로 총장을 방문,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승진인사의 관행과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요구한 것이다.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성교수가 전교조·민교협 등에서 벌여왔던 적극적인 활동이 주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다음 파문은 상지대에서 일어

수(독문학)가 재임용 탈락되었다. 두 교수는 장교수의 복직을 위해 학교측에 항의하고 대학 민주화를 위해 교수협의회를 결성하려고 했으나 결국 저지당하고 말았다.

결국 재단 이사장은 5·3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자 이것을 빌미로 두 교수를 해임한 것이다. 그러나 두 교수는 이에 불복,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90년 10월 19일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사장은 신학기가 되어도 두교수에게 연구실도 강의도 급료도 지불하지 않았다. 91년 4월3일 MBC에서 방영된 'PD수첩'에서 김인식 동의대 이사장은 "이 학교는 내가 만든 학교다. 사법부에서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그것은 사법부의 전권이고 나는 나대로 이 학교를 운영한다.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내리더라도 나는 그 두 사람을 이 학교에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교육이라는 탈을 쓰고 있을

◇동약, 14대 총선투쟁 평가

14대 총선은 국민당몰종, 민주당의 선전, 민중당해체 등의 특징을 보이며 민자참패와 여소야대 국회를 창출했다.

그러나 총선투쟁에 대한 평가는 재야 및 많은 학생 운동의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시키면서 대선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정치적 과제를 남겼다.

먼저 총선투쟁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총선에 대한 전반적인

즉 총선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재야 및 민중전열의 사사오오 분열된 모습으로는 어떠한 변혁도 기대하기 힘들며 지배세력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적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14대 총선이었다.

한편 총선은 '동약의 투쟁력을 어떻게 집중시키고 지도할 것인가' 하는 과제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기반한 민중후보 지지지원사업

극대화되고 개인·이기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6공을 몰아내자'는 식의 80년대 초반 구호는 92년 상황에 맞지 않았다.

이번 총선투쟁은 다른 한편으로 민주전열과 학생운동의 현실을 그대로 표출시켰다.

학생회 사업과 정치투쟁의 유기적 결합방도의 부재, 대중간부의 원칙부재와 지도력의 한계 등은 이후 학생회 강화와 정치투쟁에 있어 중요한 과제였다.

대선을 9개월 남겨놓고 지금부터 학생운동은 분주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조직·정치

학생회 일상사업과의 결합 부재

상층위주의 사업전개...힘없는 투쟁 초래

원칙과 전술방침, 그리고 철저한 사전준비의 부족이었다.

3월 총선과 등록금이란 두 환경적 요인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겨울방학 때부터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투쟁과정에서 올바르게 결합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오류는 크게 학생회체계의 이완, 조직·의식화 사업내용의 부재, 학생회와 일반학생들의 괴리현상을 초래했다. 이는 이후 학생회 조직강화의 커다란 후퇴를 야기시켰고 더욱이 상층위주의 사업논의는 일반학생들의 정치투쟁에서의 무관심을 낳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총학생회와 단과대의 사업차등이다. 총학으로서의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7개 단과대의 부분·독자적 움직임으로 총학차원의 정치투쟁을 지도하지 못했다. 당초 총선대책위가 발족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일·연합전술을 집행하지 못하고 해산했으며 이는 이후 정치투쟁에서 중요한 논의대상이 될 것이다.

에 매몰되는 잘못을 범했다. 성동갑 김철수 후보의 지지·지원사업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총학이 담당했어야 했던 대중적 참여유도는 김후보 선거운동의 뒷전이었고 김후보 선거운동보다 민중후보의 상을 제시하거나 왜 민중후보를 지원하고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한가 하는 선전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녔었다.

오히려 7개 단과대의 부재사투표, 공명선거·부표참여운동이 총학보다 활발했다는 점은 이후 정치투쟁에 있어 총학에게 하나의 문제점을 던져 주었다.

총학과 7개 단과대의 총선평가서는 이후 대선까지의 정치투쟁에서 전술방침의 필연적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대국민·학내 선전전을 활발히 벌였음에도 이에 호응하는 학생들이 적었고 오히려 총선결과를 국민의 '반민당'심리를 나타냈다.

결국 지배메타물류기의 영향력이

적 오류와 한계를 경계하게 만성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이후 정치투쟁 역시 현상태의 담보를 면하기 어렵다.

또 87년 대선때와 같이 대선에서 나타날 정치적 입장차이로 민주전열이 분열하여 각자 독자적인 전술만을 구사한다면 사회변혁에 대한 노력은 소모적인 논쟁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동약에서는 과단위로부터의 냉철한 총선투쟁평가와 함께 학생회조직의 강화가 시급한 과제다. 총선투쟁과정에서 보인 상층위주의 사업전개는 현재 학생회체계의 약화를 초래했고, 이의 극복은 복잡하면서도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된다.

과 M.T, 체육대회등 학생회 일상사업에서부터 학생회에서 떨어진 학생들을 다시 모아내고 이후 대중적인 논의속에서 정치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병민 기자)

무더기 파면·재임용 탈락...학원자주 원천봉쇄 의도

“개악 당시 각계의 우려 수위를 넘어섰다”

인사·재정권, 대학으로 귀속돼야 대학자치 가능

의 권한만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용상의 문제로 제기 되었다.

이 법의 통과 직후 어용교육단체라고 지목받아온 '교총'까지도 이 법의 비민주성을 지적하였고 많은 민주교육단체들은 이 법의 통과 철회를 요구하고 다시금 민주적으로 개정할 것을 각계에 탄원한 바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90년 3월17일 '사립학교법 반민주적 개정을 전면 거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임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농성에 돌입하였고 여러 민주교육단체들과 연대하여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6월 16일 '사립학교법 반민주적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라는 전국 단위의 단체가 결성되어 전교조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 등 6개 단체가 가입하여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여러번의 공청회와 교육주체결의대회에도 불구하고 개정운동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지금은 민주교육단체의 문제제기만 남아 있고 야당마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개악된 사립학교법은 대학법인협의회가 주장하듯이 '위헌조항으로 일록된 사립학교법으로

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여기서는 개악된 사립학교법 가운데 내용상 가장 독소조항인 '교직원의 임면권과 신분보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해 보겠다.

개악된 법의 제안 이유 중에서 '교직원의 임면권과 신분보장'을 재단에 넘기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직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래 대학의 총학자에게 있던 교수와 직원의 임면권을 재단에 넘겨 주고, 교수재임용에 관해서는 재단이 정하는 정관에 일임함으로써 대학의 인사권을 대학으로부터 박탈하여 재단에 귀속시킨 것이다.

많은 교수들이 개악된 사립학교법 통과 이후 이 법이 대학과 사회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교수들을 탄압하고 축제를 채우려는 정권과 재단의 의의가 보인다고 주장한데에는 바로 이 점에 있다. 왜냐하면 우려한 바대로 개악된 사립학교법 이후 5공 시절보다 더욱 많은 수의 해직교수가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전국해직교수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공 시절 9명이었던 해직교수가 사립학교법 개악 이후 50여명에 달한다.

이것은 개악된 사립학교법 이후 교원단위의 심각성과 6공의 허구적 민주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났다. 원주의 상지대(이사항 김문기·제14대 민자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교수협의회 소속 5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재단측은 '교수협의회를 탈퇴하면 구제하겠다'는 말로 종래에 늘 해오던 협박을 한 것은 물론이다. 그 다음 희생자는 동의대에서 나왔다.

동의대의 박동혁(불문학), 김창호(영문학) 두 교수는 89년 5월 이른바 동의대 5·3사건 이후 휴교령이 해제되자 아무런 이유없이 학교측으로부터 해임을 당했다. 이른바 동의대 문제는 89년도 후기에 제논의 입시의 재검정에서 발단되었다. 한 동료교수가 재검정중이던 김창호 교수에게 표시가 되어있는 답안지에 높은 점수를 주려는 요청과 함께 돈봉투를 내밀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교수는 이를 거부하고 학교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고 훗날 학교측에 뒷수습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학교측의 압력과 회유를 당해 사회학문에 호소했으나 이른바 5·3사건으로 이 사건은 호처리되지 않았다. 박동혁 교수는 학생들이 검찰에 임시부정을 고소하자 민교협 교수 7명과 함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 이에 앞서 동의대 교수 10명은 86년 4월,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는데 87년 장희창 교

뿐 그에게는 이미 인간의 양심과 도덕이라는 덕목을 찾아볼 수 없다.

지원관계상 더 많은 대학의 사례를 연일 이 쓸 수는 없다. 대전실업전면대의 김경식 교수, 호남대의 7명의 교수를 중위로 다량하락(?) 파면, 해임, 재임용탈락시켰고, 세종대는 3명의 교수를 해임, 재임용탈락시켰다. 그밖의 교원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경우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결국 해직교수가 증가되고 교원단위가 더욱 심해지고 교묘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여러가지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자체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오늘날의 세계적인 교육상향에 널리 자리잡고 있는 '대학자치' 또는 '학교자치'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학의 자율성은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학생과 직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학 스스로가 대학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행사하고 자치입법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다.

박 동 혁

(전국해직교수협의회 회장)

◇동약 청소 캠페인 확산

“동약을 내치점려 갑시다.” 최근 과·단과차원의 '동약깨끗이하기'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화학공학과 87학번 북학생회장의 과전용강의실 청소를 시작으로 연영과 '대청소의 날', 야간강과 총학생회의 '야간강과 사랑의 날'등 지난해 총학차원의 '범동약 청소의 날'과는 대조적으로 학과·단과차원의 캠페인이 활발하게



“총학차원의 범동약운동으로 발전돼야”

벌어지고 있다.

화공과의 경우 지난해 1월 87학번 북학생 3학년의 중심으로 E204·205강의실을 청소해 다른 과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김주현(화공과 학생회장)군은 “3월 초 우리가 출신수배해 강의실을 청소하자라는 의견이 87학번내에 제기되면서 시작하게 됐다”며 “강의실을 청소하다 보니 세살 강의실이 더럽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먼 창문을 보고 놀랐다”며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남의 것처럼 사용하는 버릇이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화공과는 강의실내 급원율, 강제하고 있으며 매년 전용강의실 대청소를 계획하고 있다. 연영과 학생회도 지난해 1월 전학년

이 참가한 가운데 본관1층 대청소 및 동약청소를 실시했다.

본관1층 청소는 배학기 실시되어 왔지만 조를 편성, 후문·동극관·도서관·불상주변등 동약교정을 청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

학생회장 진민국(4)군은 “2일 과총회에서 동약대청소도 우리가 먼저 앞장서자는 의견이 나와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매 학기 초 소속장·스튜디오 대청소와 함께 동약대청소도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다.

또 야간강과 총학생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4시30분부터 30분동안 동극관주위 청소를 지난해 대조경리, 과강의실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6일 8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동극관앞 화단과 복도의

대자보 정리, 강의실청소를 실시한 이후 범야간강과작인이 참가한 가운데 이 운동을 지속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과·단과차원의 '동약깨끗이하기'캠페인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총학차원의 '범동약인 대청소의 날'이 정기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총학의 '범동약 대청소의 날'이 계속적인 실시없이 동약사랑의 '불세'로 그쳤던 반면 이번엔 학부단위에서 이러한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총학생회와 단과대총회는 1년 동안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동약 대청소의 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사회부)

교육방송국 상반기 프로그램 편성표 안내

2만 동국인의 소리로...

서울캠퍼스(DUBS)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8:30~9:00	토	아	의	세	아	침
12:10~12:15	토	아	의	세	아	침
12:20~12:25	토	아	의	세	아	침
12:30~12:35	토	아	의	세	아	침
12:40~12:45	토	아	의	세	아	침
12:50~12:55	토	아	의	세	아	침
4:50~5:00	토	아	의	세	아	침
5:00~5:10	토	아	의	세	아	침
5:10~5:20	토	아	의	세	아	침
5:20~5:30	토	아	의	세	아	침
5:30~5:40	토	아	의	세	아	침

경주캠퍼스(DKBS)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8:20~8:50	토	아	의	세	아	침
12:20~12:25	토	아	의	세	아	침
12:30~12:35	토	아	의	세	아	침
12:40~12:45	토	아	의	세	아	침
12:50~12:55	토	아	의	세	아	침
16:40~16:45	토	아	의	세	아	침
16:50~17:00	토	아	의	세	아	침
17:10~17:20	토	아	의	세	아	침

새/날/을/여/는/소/리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

초대 산업기술대학원 학생회 출범

21세기를 선도할 산학역군의 요람—신설 산업기술대학원

개강의 힘찬 거보를 내딛다

80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동국대학교가 자연과학분야(이학·공학·공학계열포함)의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00여명에 이르는 본교소속의 국내외 출신 석학들과 함께 사계의 권위자 및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본대학원 초청 우수 교수전으로 모시고, 다가오는 21세기—첨단산업기술시대의 첨병이 될 산학역군의 산실을 마련하였으며 산업기술대학원의 초대 학생회도 힘차게 출범함을 알립니다.

초대 학생회 임원

고 문: 양승우(농림자원, 양명군산립조합장) 김낙산(산업공학, 덕산상사대표)
회 장: 김성봉(건설공학, 원호건설대표이사) 김상철(건설공학, 동양건설이사)
부회장: 류종선(건설공학, 동원건설이사) 고원환(식품공학, 우원미대사관비국소매점)
성원복(산업공학, 남서울호텔이용부대표) 회 기술상담역
원영두(농림자원, 엔비이온비오개발이사)

감 사: 심종필(농림자원, 자동차보험이사) 구재근(건설공학, 호정개발이사)

총 무: 박정우(건설공학, 유원건설산업연구원)

산업기술대학원 학생회

이슬우화와 민담

모든 옛스럽고 참된 것들은 하나같이 간결했다. 위로 성인의 말씀들은 모두 간결하고 짧으며, 또한 아래로 민중들의 삶에서 우리나라 속담이나 노래나 이야기도 모두 간결하고 짧았다. 참된 마음을 말하자니 짧을 수밖에 없었는데 꾸미고 거짓말을 둘러대자니 길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현대는 바야흐로 말의 시대 이야기의 시대 장편소설의 시대라 할 것이지만, 이야기 속에서도 간결한 이야기 우화나 민담같은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향그러운 참됨이 있다.

근대 교육이 시작된 뒤로 어린이들의 교육에는 '이야기'양식이 존중되었다. 소설처럼 긴 이야기나 '토끼와 거북의 경주'나 '개미와 메미의 겨울양식'이야기들처럼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슬우화의 수용이었다는 사실에 주의하는 이는 적고, 한편으로 동물들의 비유담이면 무조건 이슬우화로 생각해버리는 경향 또한 없지 않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미친 필자는 이슬우화의 수용양상을 논문으로 발표할 바 있었음에도, 요사이 고전을 제화하는 유행을 타고 이슬우화로 적잖게 일한다니 생각하는 점이 없지 않다.

"서민적지혜 발휘한 옛날얘기 그림다"



◇우화가 보여주는 덕목은 '지혜'이나 잘못하면 '책략'만이 될 우려가 있다.

이슬우화... '교훈'과 달리 역효과 우려 향그러운 참된 진실 내포돼 있어...민담

우화는 어린이나 어른들이 언제 읽어도 재미있고, 모두에게 지혜를 주는 이야기다. 우화는 동물들을 등장시켜 외인화한 비유의 이야기로 서민들의 문학양식이며, 보통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우화는 동물들에 한 가지씩의 성격을 부여하고, 인간의 행동을 풍자하여 삶의 지

혜를 교훈한다. 17세기 프랑스의 우화시인 라·퐁테네의 의견에 따라 우화의 몸은 이야기 자체로 본다면, 우화의 혼은 교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몸과 혼이 들어 아니고 유기적으로 합쳐져 있다는데 우화의 오랜 생명력이 넘친다. 라·퐁테네는 그의 후반생을 거쳐 이 우화들을

시로 재화했고, 제화한 2백37편의 우화시를 루이 14세의 왕태자에게 교과서로 바쳤다. 그는 이 우화시를 바치는 헌사에서, 이 세상에 유익하면서도 재미를 다 갖춘 것이 이 우화밖에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프랑스의 일반 어린이들에게도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우화를 교과서에 실어 문학교과제로 외게 했다.

그런데 18세기의 철학자 루소는 자기의 교육소설 '에밀'에서 '여유와 까마귀의 이야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교훈적 의도가 어린이 교육에 아주 역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심히 비판하고 나섰다. 곧 어린이들은

입의 치즈를 빼앗을 수 있는지 그 책략을 배울 뿐이라는 것이다. 우화가 보여주는 덕목은 삶을 편안하게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지혜의 보기들이다. 그러나 우화의 참정신, 교육적 의도가 어린이들에게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어린이들의 책임이 아니다.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린이들이 우화의 교훈을 책략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도록 사악하게 만든 어른들의 책임이다. 옛날처럼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사랑의 교훈으로 들려주던 민담이나 전래동화의 미학을 되살려야 한다. 이야기가 통했던 할머니와 손주 사이처럼 친밀한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우화의 재미와 교훈을 한낱 김빠진 지배 이데올로기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화의 간결한 수사와 참서민적 지혜가 존중받는 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김 태 준
(문과대 국문과 교수)

동국문학 전통이 맺은 실한 열매

나무를 길러온 사람만이 안다/만들게 잘 자란 나무는/재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나무 잘나고 큰 나무는/제 치레하느라 오히려/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한 군대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친 나무에/또는 못나고 불꽃이 자란 나무에/보다 실하고/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신경림 '나무' 중에서(동국시집 19집)

전통이라는 말에는 언제나 '보수적'이라는 말이 따라붙게 마련이다. 그것은 부정적 의미로 해석될 때 새로운 것에 대한 견제나 거부 의미를 지니고도 한다. 그러나, 엘리엇의 말처럼 전통은 한 개인의 재능을 싹틔우는 자양을 공급하며 그 현재의 독창성과 창조성은 늘 새로운 문학사의 전통 속으로 귀속되어간다. 사실 재능있는 시인이나 소설가가 자신의 독창성의 근원이 전통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란 아주 드물다. 우리들 또한 깨어있는 전통의 기운을 느껴본 적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나 될까. 전통의 이미지는 어딘지 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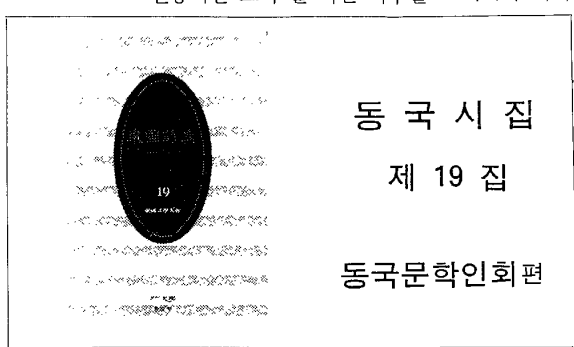
고 색바랜 헌 구두의 모양새로 인식되기 쉽다. 언제나 새 것을 선호하는 자본주의적 논리가 낡은 새것 컴플렉스 때문이라고 할까. 전통은 늘 잔반 대접이다. 쓰고 버리는 간편한 체계를 지배하는 사회에서 지나간 것을 다시 바라본다는 건 오히려 비경제적인 일이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매정현(?) 일회성의 시대에 전통이란 그저 철 지난 외투일

학인회가 그 문학적 전통 위에 또 하나의 실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월간문학 출판부의 특별기획으로 만들어진 이 시집에는 서정주, 장호, 이형기 등 원로시인과 신경림, 마중하, 박재천, 홍신선, 문정희 등 중견 및 신인에서 재학생까지 총 73명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동국문학의 전통이 후배들에게 다시금 인식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동국시집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이 그 발간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문학의 전통은 창조성에 있기보다는 지속성에서 성취된다. 그리고 개별성보다는 집단성에 의해 계승된다. 따라서 문학전통의 본

질은 창조의 개성 및 개별성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집단주의에 의해 이어지는 지속성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우리는 예술로지를 기획하여 출판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학의 계승 발전에 한층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

김 춘 식
(문학평론가·대학원 국문과 석사과정)



동 국 시 집
제 19 집
동국문학인회편

이달의 시

봄 등 산

구 법 조(본명 태희)
(시인·교육대학원 교학계장)

겨울장 언저리에
남아 있던 저녁 노을
진달래 꽃향기로
대지를 율동시키고
봄등산 찬란한 빛은
가슴 속을 파고 든다.

사월 등산에서
님의 뉘를 기리고자
한 줄기 흙을 태워
진 밤을 지새우니
봄등산 꽃망울 속에
아가 잃어 새 돋는다.

천등도 빛을 보면
광야의 아침 이슬
태고의 고요 속을
술바람이 휘젓는데
봄등산 님의 침묵은
내 사랑 한반도다.

수화를 배웁시다 ⑤

수화할 때의 주의점
수화를 배우고, 할 때에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수화는 한 동작에도 여러 가지의 뜻을 포함하므로 사용시 상대방과의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많으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며 사용하여야 한다.
①수화 동작의 범위는 가슴 중심으로 해서 배에서 머리까지이다.
②손의 위치와 형태, 방향을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
③양손의 관계와 손의 움직임

이 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④수화는 시각적 언어 매개체로서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표정과 제스처를 풍부하게 사용해야 한다.
⑤수화분장에는 조사가 대부분 생략되어 있으며,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등의 품사에 관여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둔다. (예: 활동=활동하다=활동한=활동하게)
⑥단어나 문장에 알맞은 수화 표현이 없을 경우에는 지화로 사용하거나 적절한 수화로 의역한다.

< 손짓사랑회 >

鈍馬의 근면성

오 형 근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와 화합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불성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가능성을 개발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佛性論에 의하면 중생이 자신의 본성을 망각하고 타에 의존심이 많기 때문에 이를 깨닫지 하기위하여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고 설하게되었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게으르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격정하는 것을 번뇌라고 하면서 무지한 사람은 게으르고 지혜있는 사람은 부지런하다고 한다. 진리 그 자체는 평등하지만 그 진리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는 마치 동일한 물이지만 소가 마시면 젖이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과 같다.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환경을 조성하면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 열심히 자신의 불성을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공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불교는 특히 근면하게 공부하고 노력하면 희망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나태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정신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팔정도와 육바라밀 중에서 正精進과 精進바라밀이라는 목적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다. 이때 정신은 근면을 뜻한다. 정신을 하되 근생에서 감옥을 입고 노력하듯이 근면하게 하라는 뜻에서 披甲精進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희망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인간은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한다. 불성은 무엇이든지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깨달음의 작용을 지혜라 하므로 지혜가 있는 자는 진리를

는 후퇴하지 말라는 뜻에서 無退精進이라고도 한다. 毘婆沙論에서는 정신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利馬와 鈍馬의 비유를 들고 있다. 그럼 利馬와 鈍馬의 비유를 들어 보자.

두사람가운데 한 사람은 날랜 말을 타고 또한 사람은 둔한 말을 타고 먼곳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러나 날랜 말을 타고간 사람은 부지런하게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뒤처지게 되었고 둔한 말을 타고 간 사람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 목적지에 먼저 도착할 수가 있었다.

비바사론에는 이와 같은 비유설화로써 게으른 사람들을 교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유설화의 내용을 집약하여 다음과 같은 계율을 읊고 있다.

"근면함과 근면하지 못한것은 깨어있는 것과 잠자는 마음의 차이이다. 날랜 말과 둔한 말을 타고갈 때 부지런히 달리는 자가 먼저 도착하는 것이다."

이 계율의 취지는 깨어 있는 마음으로 근면하게 노력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성공할 수 있음을 말한다. 더불어 신분을 떠나 각 계 각층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대학생들에게는 희망도 크고 꿈도 많을 것이다. 그 꿈을 희망대로 달성하려면 둔마처럼 근면하게 달려야 한다. 대학생으로서 남만도 있어야 하지만 지나친 낭만은 둔마처럼 달리는 데 급해야 하며 시간을 아끼고 思惟를 통하여 진리를 탐구해야 하는 대학과 대학인의 정신을 잊으면 안된다.

그러면 반드시 미래의 원만한 행복이 기약될 것이다. 일체는 唯心造라는 말이 있다. 마음에 의하여 모든 것이 창조된다는 말이다. 이 사상의 근본은 근면하게 정진하면 지성과 인격이 창조될 수 있으며 앞서가는 자신을 창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이마와 둔마의 비유를 생각하고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라찰라마다 방심하지 말고 부단히 정진하도록 모든 일에 힘써야 하겠다.

적 회생은 다른 소설이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직원들 사이에 꽃피는 뜨거운 애정과 투쟁은 인간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한·4천2백원>

공연안내

◇불종개주세요... 첫사랑을 못잊어 하는 중년 남녀의 사랑 얘기. 무기한 장기공연 화·수·요일 오후7시30분, 목·금·토·일요일 오후4시, 7시30분. 대학로극장. 764-6052.

◇안티고네... 그리스신화 중에서 '오이디프스 왕'을 시작으로 그의 딸인 '안티고네'까지 그 가문의 비극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다. 4월30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 성곽소극장. 741-5484.

◇화니와 미리우스... 유서 깊은 항구 마르세유를 배경으로 세자르 일가가 펼치는 서민들의 생활과 애환, 사랑과 갈등, 웃음과 눈물을 넘치는 유머와 따뜻한 서정으로 그린 작품. 4월9일부터 19일까지 평일 오후7시30분, 금·토·일요일

오후4시, 7시30분. 호암아트홀. 751-5555.

◇고도를 기다리며...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조망하고 있다.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 엘칸토예술극장. 776-8035.

◇한두개 술이 떨어졌던들... 안중근 의사 서거82주년 추모공연. 4월12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 일출소극장. 744-2124.

◇노래마을... 구전가요의 수집과 보급, 민족음악의 대중적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노래운동의 선두주자적인 '노래마을'의 공연.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 학전 소극장. 763-8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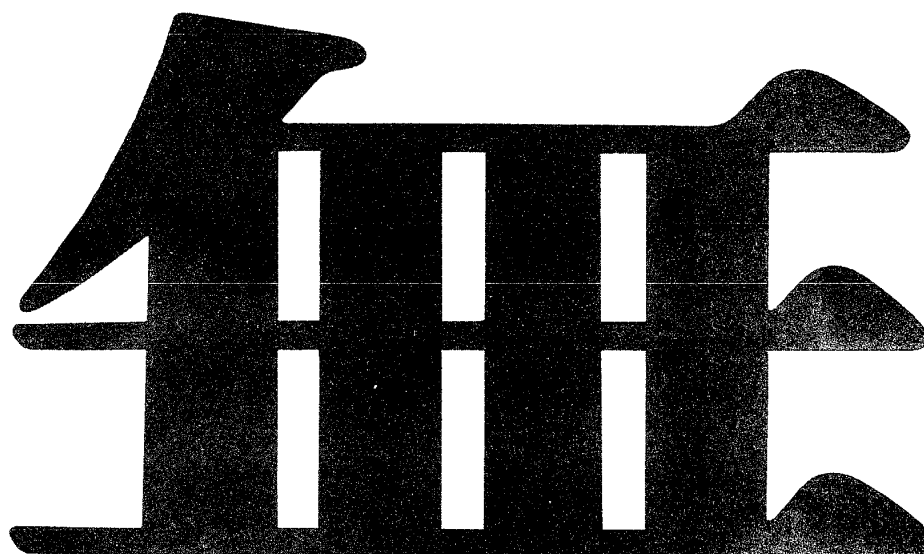
◇그대 모르는 통일 의 연... 민족통일선의 노래평화상 수상을 위한 후원회 결성차 석방을 위한 공연. 오는 4월11일 오후4시, 7시. 연세대학교 대강당. 887-1524.

(문화부)

무설탕검은 역시 해태-

"없어서 좋습니다"

해태 無설탕검-알파-노노, 유카리스



왜 무설탕검이 좋은가?

설탕대신 술비틀을 사용—

- 총치 NO: 구강미생물 활동을 억제해 충치에 무관합니다.
- 당노 NO: 인슐린이 필요없는 신진대사로 당뇨병에 무관합니다.
- 비만 NO: 설탕에 비해 60~70% 저칼로리, 체내에 흡수가 적습니다.
- 청량감: 술비틀의 용해열이 입안온도를 낮춰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날씬한 숙녀를 위해 새롭게 태어난-알파-노노검

- 식섬유: 식이섬유를 첨가, 변비를 예방하고 언제나 날씬하게
- 후로랄함, 페퍼민트향: 여성스러운 후로랄함, 상쾌한 페퍼민트향 2가지

입안을 깨끗하게, 목까지 시원하게-유카리스검

- 후라보노이드: 녹차추출물인 후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입냄새를 맑게
- 유카립투스: 유카립투스 성분의 휘산작용으로 목까지 시원하게

